〈위성미〉

위성미 '드라이버 샷' VS 신지애 '쇼트게임'

LPGA 캐나다오픈 최후 승자는?

3R 10언더 공동선두 … 최나연·이지영 4타차 추격

위성미(21·나이키골프)와 신지애(22·미래에셋)의 우승경쟁이 치열하다.

위성미와 신지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나섰다. 2라운드까지 단독 1위를 달렸던 위성미는 29일(한국시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세인트 찰스 골프장(파72·6572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를 3개씩 맞바꿔 이븐파 72타를 기록했다. 10언더파 206타로 3라운드를 마친 위성미는 신지애와 함께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다.

전날 위성미를 3타 차로 따라붙었던 신지애는 버디 5개에 보기는 2개로 막으며 3언더파 69타를 쳐 위성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위성미가 16번 홀에서 1타를 잃고 신지애는 17번 홀(이상 파4)에서 1타를 줄이며 순위가 같아졌다.

위성미는 지난해 11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개인 2승째를 노리고 있고 신지애는 지난달 에비앙 마스터스 이후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평균 드라이브샷 거리에서 위성미는 274야드로 1위, 신지애는 236.8야드로 133위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평균 퍼트 수에서 신지애가 28.97개로 16위, 위성미는 31.14개로 146위에 머무는 등 쇼트 게임에서는 신지애가 한 수 위다. 그린 적중률은 위성미가 72.2%로 3위, 신지애는 70.4%로 6위에 올라 있다.

4라운드 내내 동반 플레이를 하게 된 둘은 이번 대회에서도 평균 드라이브샷 거리는 위성미가 290.17야드, 신지애는 252.67야드로 40야드 차이가 나지만 퍼트는 신지애가 80개, 위성미 87개로 더 정확했다.

최나연(23·SK텔레콤)과 이지영(25)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인경(22·하나금융)은 5언더파 211타를 쳐 공동 6위. 세계랭킹 1위 미야자토 아이(일본)는 1언더파 215타로 공동 20위, 2위 크리스티 커(미국)는 3언더파 213타를 쳐 공동 1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신지애〉

'아마' 배희경, 프로 제치고 우승

신지애 이후 4년 11개월만에 안신애 시즌 상금 4억 돌파

아마추어 배희경(18·남성여고3)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LIG클래식(총상금 3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배희경은 29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장(파72·6494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 사흘째 3라운드 경기가 많은 비로 취소되면서 2라운드까지 성적 7언더파 137타로 우승이 확정됐다.

아마추어 선수가 국내 여자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5년 9월11일 SK엔크린 인비테이셔널 신지애(22·미래에셋) 이후 4년 11개월 18일 만이다.

또 다른 아마추어 한정은(17·중문상고3)이 2라운드까지 5언더파 139타를 쳐 안신애(20·비씨카드), 조영란(23·요진건설)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시즌 상금 1위 안신애는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공동 2위 세 명 가운데 한 명도 아마추어라 조영란과 1,2위 상금을 나눠 가지는 행운을 누렸다. 상금 4725만원을 얻은 안신애는 시즌 상금 4억원을 가장 먼저 돌파(4억508만원)했고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도 218점이 돼 공동 1위였던 이보미(22·하이마트)를 2위로 밀어냈다. /연합뉴스

함평골프고 장수련 매경아마골프 정상

국가대표 상비군 장수련(함평골프고)이 제14회 익성배 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장수련은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에서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쳐 김효주(육민관중·10언더파 278타)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남자부에서는 배윤호(제물포고)가 대회 마지막날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2위 이상엽(낙생고·2언더파 286타)을 무려 10타차로 따돌렸다. /연합뉴스

우즈 트리플보기 발목

PGA바클레이스 3R 나상욱과 28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3라운드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즈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퍼래머스의 리지우드골프장(파71·7319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뽑아냈으나 보기 1개와 트리플보기 1개에 발목이 잡혀 1타를 잃었다. 이날까지 3언더파 210타를 기록한 우즈는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 헌터 메이헌(미국),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등과 함께 공동 28위로 밀려났다.

12언더파 201타를 쳐 단독 1위에 오른 마틴 레어드(스코틀랜드)와는 9타 차이가 나 우즈는 시즌 첫 우승을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프로 1호 女감독' 조혜정 데뷔전 승리

〈GS칼텍스〉

기업은행컵 배구 현대건설 3대0 완파

남자 우리캐피탈 작년챔프 삼성 격파

프로배구 우리캐피탈 드림식스가 컵대회에서 새로 장착한 거포 박철우만 믿고 있던 챔피언 삼성화재 블루팡스에 일격을 가했다.

우리캐피탈은 2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원·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 대회 예선리그 A조 1차전에서 김현수(20점)와 최귀엽(18점), 신영석(17점)이 활약을 펼쳐 삼성화재를 3-1(22-25 25-18 29-27 28-26)로 격파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에서 삼성화재로 둥지를 옮긴 박철우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27점을 몰아치며 주포로 행세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우리캐피탈은 9월 1일 대한항공 점보스와 예선리그 2차전을 앞두고 토너먼트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삼성화재는 오는 31일 대한항공을 꼭 이겨야 토너먼트를 타진할 수 있는 불리한 처지가 됐다.

한편, 프로스포츠 중 최초로 여성 사령탑에 오른 GS칼텍스의 조혜정(57) 감독은 지난 28일 '2010 수원·IBK 기업은행컵' 여자부 A조 개막전에서 현대 건설을 3-0(25-20 25-19 25-18)으로 제압, 첫 승을 신고했다. 조혜정 감독은 선수 시절 164㎝의 단신에도 '나는 작은 새'로 불리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헝가리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구기 사상 첫 동메달 사냥을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라이트 나혜원이 14득점, 레프트 김민지와 출산 후 코트에 복귀한 센터 정대영이 각각 13득점으로 조혜정 감독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연합뉴스

2010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 13라운드가 28일(현지 시각)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서킷에서 시작됐다. 7.004km를 44바퀴 돌아 총 308.052km를 완주하는 스파 프랑코샹 서킷은 가장 포뮬러원 다운 추월 장면이 연출되는 그랑프리 중 하나다. 사진은 연습 라운드 중인 '레이싱 황제' 미하엘 슈마허의 F1 머신. /연합뉴스